

천안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마련



충남 천안의 유관순, 함북 명천의 동풍신, 황해도 재령의 윤택진을 기리는 남북합동 추모사업을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 제안했다.

함북 명천 독립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동풍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1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인물이다. 윤택진은 황해도 재령군 교회당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 후 만세를 선창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남북을 잇는 독립 만세운동 주도 애국청년들을 기억하고, 남과 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기에 기대하고 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천안시(시장 구분영)가 지역의 3·1운동을 재조명해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2018년 9월부터 학계, 광복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등이 참여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과 함께 과제 발굴과 실행방안을 협의해 왔다. 구분영 시장은 "호서지방 최대 독립 만세운동인 아우내 만세운동의 발생 지이자 민족 독립의 성지 독립기념관이 위치해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천안시가 중심에 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시는 '다시 보고, 함께 기억하고, 과거를 통해 나아가는 미래'라는 주제로 다섯 가지 테마의 기념사업 44건도 추진한다. 우선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순국 애국청년인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석오 이동녕 선생의 동상도 지역 내에 건립한다. 이 밖에 청소년과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사업도 마련한다. 애니메이션 제작 상영, 3·1운동 천안 자유 누리, 유관순 열사 따라 걷기 등 3·1운동 등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연다. 아울러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을 현 3등급인 독립장에서 상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시장은 "선조들의 호국정신과 민족의 얼이 담긴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천안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

2019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해

다시보고, 함께 기억하고, 과거를 통해 나아가는 미래

호국충절의 고장 천안, 중심에 서다!

